

유한한 인간의 교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말씀: 시8:1-9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 동안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다. 늘 일만 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일을 안 하고 3주를 보내려니 조금 힘들었다. 건강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걷고 여기저기 다니며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아내와 아이들, 사위들, 손자손녀들 만나서 기뻐다.

세 아이들, 둘은 미국의 오하이오(클리브랜드, 컬럼버스), 다른 한 아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비행기 직항으로도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그래서 아이들도 3가정이 한 번에 다 모이는 것이 쉬지 않고 더욱이 우리 부부는 한국에 있으므로 총 4가정이 한 번에 다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들이 이번에는 엄마아빠를 위해 한 군데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이들도 모두 같은 장소에서 지내기로 해서 올랜도에서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크루즈 배를 타게 되었다. 바하마 제도

우리는 난생처음 배 여행을 했다. 손자 손녀 아이들 사위들 모두 4일 동안 한 배에 있고 같이 아이들 뮤지컬, 영화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 배에 갇혀서 꼼짝없이 나흘을 지내게 되었다.

총 15명(*)

수백 명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도 대단한데 이번에 탄 크루즈 배는 직원 1,450명, 손님들이 4,000명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번 여행 하늘과 바다, 배, 비행기, 자동차, 자동차로 적어도 3200킬로미터 운전하며 여기저기 다님 오늘은 < >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위대함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 왔고 동시에 한계가 무언인가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배

이전에도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간다는 말을 들었고 송도 항에 여러 크루즈 선박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 막사 크루즈 배를 보니 정말 굉장했다.

배를 나타내는 단위: 13만톤

길이가 340미터, 너비 38미터, 높이가 65미터(14층 건물), 최대속도 40km/h

승무원 1,450명, 승객 4,000명, 최대 5,450명, 아파트 1000-1200세대

국제 규격 축구장 105*68, 축구장 길이의 3.21배, 축구장 너비의 56%

평균 사이즈 항공모함 10만톤, 333미터, 79미터, 75미터(20층). 승무원수 5,000명

노아의 방주 길이 137미터, 너비 23m, 높이 13.7m, 3층, 약 15,000톤, 크루즈의 11%(*)

디즈니 판타지호는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인 선박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목적과 설계 철학이 전혀 다른 구조물이다. 그러나 성경 시대(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방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조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간이 이런 대규모의 배를 만들어서 원하는 데로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바하마 제도의 어떤 섬에 부두를 만들고는 모두가 자는 동안 밤새 달려서 부두에 세워 두고 모두 내려서 에메랄드 바다에서 해수욕, 스노클링, 요트 등 다양한 놀이를 하고 또 올라타면 밤새 어디로 달려간다.(*).

이런 것을 보면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공학의 예술과 위대함을 본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렇게 큰 배가 바다 위를 떠서 항해하는데 그 바다와 비교해 보면 그냥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땅에서 지내니까 지구의 대부분이 땅인 줄 아는데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이다.

배에서 가만히 바다를 보니 망망대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시104:24-29: 1절,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 사역

시107:23-31: 1절, 하나님의 다양한 선하심, 8, 15, 21, 31절 동일하게 반복된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안타깝게도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어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성경 창세기, 하나님의 숨(창2:7),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감(창1:26-27) 지적 설계 능력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느부갓네살의 공중 정원,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해저 터널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다.

이러 면에서 보면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데, 인간이 만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니 인간이 엄청나게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금세 깨닫게 된다. 그냥 먼지 하나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서부, 괌(Guam) 남서쪽 약 300km, 마리아나 해구(Mariana Trench)의 챌린저 해연(Challenger Deep)이다.

깊이 약 10,984m, 약 11km

에베레스트산(8,848m)을 롤 거꾸로 놓어도, 2km 이상 여유 공간이 있음

여객기 순항 고도보다 깊음 (상공 약 10km)

바다 수압은 약 1,100기압 (지상 대기압의 1,100배)

이런 곳을 사람이 다녀온 적이 있나?

욥기: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항변하지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해 보라고 하신다.

욥38:1-11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약 90개의 질문을 하신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38:4)

“바다의 샘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38:16)

“네가 눈 곳간들에 들어가 보았느냐?” (38:22)

“네가 번개들에게 명령하여 가게 할 수 있느냐?” (38:35)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38:39)

욥은 스스로 지혜롭고 다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이런 질문들을 대하자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그의 반응: 42:1-6, 나 자신을 혐오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들딸로 받아주신다.

이런 예시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유한한 인간의 미약함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영광, 능력, 권위

시편 8편의 하나님의 은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낮은 위치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심히 소중히 여기고 놀랍게 높이신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의 시

당시에는 스마트폰 같은 오락 기계가 없었다. 밤이 되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

지금 우리는 평생이 이런 광경을 몇 번 못 본다. 몽고 등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데 가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치기 다윗은 매일 밤낮으로 하늘을 보며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대다수 현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1절: 주의 이름, 이름은 인격체 자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영광(glory)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말이다.

기본 뜻: 히브리어: ‘무거움’, ‘중요함’, ‘존귀함’, 그리스어: ‘명성’, ‘존귀’, ‘찬양’, ‘광휘’

영광은 하나님 자체의 존재적 본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며, 이 영광은 어떤 창조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본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빛, 불, 구름, 거룩한 광채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위엄, 임재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드러남

“어린이들의 입” : 가장 약한 자들, 순수한 찬양의 상징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힘이 나오게 정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시인하는 자들의 찬양을 통해 선포됨

3-4절: 하나님의 광대하심, greatness, vastness와 비교되는 인간의 미약함

5-6절: 이런 미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

7-8절: 그래서 비행기, 우주 왕복선, 크루즈 선박, 항공모함, 스마트폰 등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게 하심

9절: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며 뛰어나신 분인지 반복해서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무한대의 하나님이 먼지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

시편 8편이 바로 이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은 4절: 무한대로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심지어 그를 찾아오신다. visit

인간의 예외범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찾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구원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막2:17,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인간들 가운데 오직 죄인들만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다.

롬5:6-10

이번에 맥아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였다. 약 5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4-5000명 수용 예배당, 85세, 아파서 설교하러 나오지 못함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미약한 인간, 노쇠해서 곧 죽는다.

이번에는 폴 채플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랭카스터 침례교회도 방문함, 2-3,000명, 회중석, 성경 대학 등 대단하다. 1962년생, 고등학교 한국, 1986년 파산 직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4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가장 큰 독립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함, 대단하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미약한 인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업적이 많은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유식무식, 인종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를 포함한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결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이 들어 있는 창조물인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신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3:16, 믿으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 행위가 아니라

히11:6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넘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